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나에게 ‘아시아’란 한중일 중심의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바깥의 국가들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이외에 떠오르는 느낌이 없었다. 그리고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논란 정도만 어디선가 들었을 뿐, 아시아의 범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잘 모르는 현실에서 눈을 돌렸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아시아’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첫 수업은 ‘아시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또한 어떤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거기서부터 매주 다양한 세부주제를 이어나가며, ‘아시아’라는 하나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적었기에, 이 강의는 아시아에 대한 나의 지식, 선입견 등을 충분히 되짚어보고 새로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매주 다른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전문분야는 제각기 다르고, 강의를 위해 선정하는 주제들 또한 다양하기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반면에 수강생들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여러 강의를 듣는다. 이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소주제들을 하나의 대주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점은 매력적이라 느꼈다. 이런 식의 강의라면 꼭 ‘아시아공동체론’이 아니더라도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강의까지 듣고 나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강의명이 ‘아시아공동체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럴 만도 하다. ‘아시아’라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떤 민족과 문화가 지역을 주도하고 있는지 등 한 가지 특성으로 정의내리기 힘든 곳이다. 즉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공동체’란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목표이다. 여기에 의미가 없다고, 혹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라는 목표로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는 것이다. 지금 인류사회에는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의 개막을 시작으로 도처에 고립주의, 배타주의, 나와 다름에 대한 혐오 등이 만연해 있다. 이는 단순히 국가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가와 개인의 중간지대 혹은 그 두 범주를 넘어서는 차원,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공동체’란 후자에 가깝다. 국가의 개념조차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데에 막연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냉전을 겪은 세대에게는 아직도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더 이상 그런 세계관이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다. 우리는 술자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면서도, 방학 동안 일본으로 여행 갈 계획을 짤 수 있지 않은가. 선대가 만든 개념상의 구도는 개념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 다층적으로 사고하며, 실리를 추구한다면 일부 문제에 모든 사안을 얹매일 필요가 없다.

물론 기존에 있던 역사적 맥락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가 충돌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달성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은 더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내가 정리한 방향은 역사적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의 역사 갈등이 두드러지는데, 우리가 그 해결을

바라는 이유는 두 국가 사이에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역사적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까? 두 국가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상대측을 낙인찍을 이유도 없을뿐더러, 명백한 문제를 겉으로만 서투르게 무마하려는 시도도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이 민감한 문제들은 ‘공동체’라는 완충재가 존재한다면 더 쉽게 해결에 이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서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달성 가능한 경제공동체로 얻을 실익도 있겠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가 대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 자체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아를 하나로 묶을 공통분모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만약 아시아의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공동체의 범위를 아시아에 한정짓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원아시아 재단 정준곤 박사님께 질문을 드렸다. 정 박사는 아시아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분명 인류공동체의 방향과 동일하다며, 실현 가능한 범위인 아시아부터 실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해주셨다. 그렇기에 ‘아시아’라는 지역 범주와 ‘공동체’라는 사회 체제가 결합한 개념, ‘아시아공동체’는 강의실에만 존재하는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된다.

이 강의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 질문하게 만든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아시아’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에 없던 가치관, 세계관을 스스로 만들어나가고 싶은가. 한 학기 동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질문들을 품고 갈 수 있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선택들이 있을 터이다. 이 강의는 그 중 하나의 가능성인 ‘아시아공동체’를 논하고 있으며, 강의를 마지막까지 듣고 나서도 결론은 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사고의 한계, 능력들을 스스로 파악한 뒤 새로운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날은 올 것이다.